

2021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 총평(2차 통합)

- 회의일시 : 2020. 12. 22(화) 14: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이지현, 정순민, 정진세, 조형준

202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심의에는 연극 118건, 무용 103건, 다원 9건, 뮤지컬 17건, 행사 2건, 기타 12건 등 총 261건의 사업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0여건 증가한 것으로 기존의 공연과 축제에 더해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공연의 신청, 신규지원 증가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창단/창설을 기념하는 해를 맞은 예술단체와 축제가 다수 발생하여 신청일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심의는 1차 장르별 심의, 2차 통합심의로 이뤄졌으며, 1차에서는 신청 자료에 대한 검토 후 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 2차에서는 취합된 점수를 토대로 경합 공연 간의 일정조율을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의 건수가 많아진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준이 요구되었고 공공극장으로서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적합한 작품 선정을 위해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예술극장은 2021년 극장의 자체기획 사업과 4개 극장의 특성화 기준을 폐지하여 외부 대관 가능일을 200여일 확대했으며, 점검/보수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일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공연을 선정(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90건 이상 선정)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다만 공연과 극장의 (일정/공연장 변경) 조율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단체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심의기준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해당 분야 파급효과, 활동 실적 및 운영 역량 등이었으며, 무엇보다 2021년 아르코 개관 40주년을 맞아 기대하는 변화 중 하나인 대관시스템 혁신의 시작점에서 예술가와 극장의 동반자 관계 설립 및 관객의 입장을 염두에 둔 공공성을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

심의가 인터뷰나 시연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된 만큼 세부계획서의 구체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최소 대관일(준비일 최소 2일) 충족 미비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계획서 검토결과 코로나에 대한 대비는 비교적 수월하게 작성되었으나 홍보 마케팅 계획에 고민 없이 나열한 경우가 많았고 공연의 성사 외에 유통이나 관객유치에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품에 있어서는 연극, 무용, 다원 모두 다양한 작품이 신청되었는데 특히 미투, 코로나 등 동시대 담론을 다룬 작품이 다수 눈에 띄었고, 젊은 작가들의 신청이 늘어난 점이 올해의 변화라 할 수 있었다.

2차 심의에서는 1차 장르별 심의에서 추천된 공연들 중 고득점 공연들을 가급적 우선으로 배치했으며, 우수한 공연임에도 경합이 치열한 기간에 밀집 신청된 경우 일정변경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기도 했다. 신청기간이 짧은 무용의 경우 1차 심의에서 추천된 공연 대부분이 선정되었으나 연극은 2주~4주의 기간을 신청한 공연이 많아 일부 공연이 아쉽게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최선의 매칭을 위해 노력했으며 개인 예술가/단체의 공연과 신규지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장르는 물론이고 작품의 규모, 성향, 세대를 크게 아우르는 기준을 적용했으며, 일부 작품의 경우 극장과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공연장의 조건과 성격에 부합하는 단체들로 우선 선정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평가했다.

그 외에 심도 깊게 논의된 사안은 연례적 축제의 극장 선점, 나아가 개인/민간단체 공연과의 불균형이었다. 이 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를 우선으로 선정하기보다 2021년 계획의 구체성과 우수성, 공공성 등을 살펴서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는 축제를 우선 선정하였다. 이미 1차 심의에서부터 어떤 작품을 공연할지 계획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불가하고 이를 관용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연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높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관이 이뤄진다는 점 역시 용납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의 대관 심의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신춘문에 등의 전문성 있는 심사절차를 거쳐 미리 희곡 작품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일부 축제의 경우 경합이 치열한 시기에 장기 독점하게 될 것을 우려해 기간 축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개인, 민간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며, 축제를 소폭 축소하더라도 관객에게 다양한 공연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공극장의 방향성에 의한 결정이었다. 심의를 마치며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축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극장의 방향성에 기반을 둔 조건들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 점을 지원 단체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관 심의에서 선정된 사업 모두 원만한 조율을 통해 계획한 공연을 개최할 수 있기 바라며, 공공극장으로서 예술극장이 지향하는 방향성 즉 예술가와 관객 모두 주체가 되어 극장과 동반 관계를 이루는 운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수한 작품들이 2020년 무대를 장식하길 기대한다.